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이 정 화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생활과학연구소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Aging and Physical, Financial &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 Focus on Gender Differences

Lee, Jeong Hwa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aging and the degree of physical/financial/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aging, who live in Gwangju & Jeonnam of Korea, on physical/financial/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is research also explores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aging,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related factors. For the purpose, the survey data was gathered from 424 middle aged (40's & 50's) citizens who live in Gwangju and Jeonnam,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are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les, t-test, correlations and regression with Spss/win 17.0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 that the age of being aged is 65 or 70 years old. Respondents feel anxiety about health (84%), finance (57%) and roleless role (22%) of later life. Female group feel health anxiety more than male group. Many people perceive that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is better than financial preparation and physic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result shows that female group perceives their physical preparation level more positively than male group generally.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financial and social preparation between gender groups. Finally, the result shows the meaningful relationships between male group's perception of aging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Monthly income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preparation for later life.

이 논문은 2005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 2009년 5월 11일 채택일: 2009년 6월 5일

Corresponding Author: Lee, Jeong Hwa Tel: 82-62-530-1326

e-mail: jhlee2@jnu.ac.kr

Key words: perception of aging, physical preparation, financial preparation, social preparation, gender differences.

I. 서론

최근 급속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남의 인구가 2030년에는 더 줄어 들 것이고, 평균연령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가장 연로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보도된 이후 이 지역 노령화에 대한 경각심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광주 전남 지역에 사는 현재의 중년층이 노후생활에 관하여 어떤 생각과 기대, 준비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현재의 중년층들이 노년기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불안해 하고 걱정하는지, 본인의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자신의 노후준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인식이 이들의 노후준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과 관련한 논의들은 노인연령층 증가에 따른 국가 부담, 경제활동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전 사회적으로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조장하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보람 있게,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 즉, 'Successful aging', 'Healthy aging'과 같은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노인이 더 이상 사회에 혹은 가정에 의존적인 존재 아닌, 독립적인 존재,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연령집단이라는 인식의 확산에 기인한다. 적극적 노인의 이미지는 노인을 젊은 세대와 전체사회에 부담이 되는 소비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의 탈피가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는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르게 되어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은퇴시기, 노년기와 함께 찾아오는 건강, 여가생활, 주거생활, 경제적인 면 등에서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노년기 질적인 삶은 단시간에 이를 수 있는 목표도 아니고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대비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준비 없이,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년기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연령집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단위에서도 보호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령층이다. 베이비 붐 세대로 일컬어지는 1955~1963년 출생 코호트가 중년기로 진입하면서 중년층의 절대적 크기 및 우리나라 인구분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들이 곧 노년기에 진입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연령집단의 은퇴준비, 노후준비는 머지않은 미래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베이비 붐 세대들이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중년기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Wethington, Cooper & Holmes 1997), 이들의 은퇴준비를 돕는 학문적 관심 또한 급증하게 되었다.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의 건강 및 의존성, 생활의 질 등은 중년기의 삶의 모습, 생활양식 등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Moen & Wethington 1999; Willis & Reid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잠재 고령층, 현재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년기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수준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때 노후준비 영역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노후준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봄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르고, 성에 따라 다른 역할구조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현재 직업분포나 취업유무가 다르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준과 기대하는 친밀성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양성의 자료를 같이 보는 것보다는 분리한 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현재의 중년층, 잠재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노년기 인식

연령은 생물학적이면서 사회적이다(McConatha et al. 2003). 연령은 개인의 자기이미지, 사회적 역할기대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 사회가 노년기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그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노인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의 노화, 노년기에 대한 인식의 틀을 만든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과거보다 건강한 노인, 전통적인 인식에 도전하는 노인이 증가하였지만, 건강이 나쁘고,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외로울 것이라는 변화하지 않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는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과 이어지게 된다. 특히 노인이 되면 병들어 아프고 나약하고 외로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혜와 연륜이 쌓이고 너그러워지며 시간 및 금전에 있어서 여유로워진다는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우세하다. 이는 노년기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이란 비참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의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걱정하는 바대로 바로 그런 비참한 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Moody(1989)는 주장하였다.

일반인들이 노년기에 대한 인식¹⁾을 어떻게 형

성하는가는 현재 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젊은 층, 중년층의 노화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나 인식은 노인을 고립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어렵게 하며 결국 우리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노인 스스로도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저하되어 스스로 사회참여, 사회통합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인들의 노후 불안, 걱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노년기에 대해 실제보다 부풀려진 불안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년기에 대한 지나치거나 근거 없는 불안대신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보다 정확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년기 이미지와 관련하여, 사람들마다 노인이 되는 시기에 관한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연대기적 나이에 준해서 우리는 개인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거기에 맞는 생활양식을 취하도록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이정표적 사건들이 있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겪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는 마치 인생의 시간표처럼 나이와 연결되어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시계(social clock)라고 한다(김애순 2002). 노인이 되는 시기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회적 시계는 달라져 최근에는 노인이 되는 나이 역시 점점 늦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연대기적 나이 외에 노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상황이 존재한다. 이는 '적어도 ~할 때까지는', '적어도 ~세가 될 때까지는 노인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나타난다.

노년기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동이나 청년들, 즉 젊은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한다(Hamilton & Sherman 1994; Hepworth 1995; McConatha et al. 2003에서 재인용). 또한 성에 따른 차이도 이야기 된다. 고래로 사람들은 남성보

1) 노년기에 대한 인식 연구들은 이미지, 태도, 고정관념, 인식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안다는 뜻으로 인지, 의식, 분별과 비슷한 말이다.

다 여성에게 노년기가 빨리 온다고 믿어왔다. 히포크라테스는 남성은 55-60세에 노년기가 시작되고 여성은 45-55세에 시작된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남성의 절정기는 30세이고 여성은 20세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이 더 빨리 늙는다고 믿고 있다(최신덕·김모란 1998). 이렇듯 노년기에 도달하는 연령이 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노화에 대한 이중기준이라고 하고 이는 여성의 지위나 자아개념이 남성에 비해 주로 신체적인 외형에 더 의존적이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2. 노후준비

사람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지나 중년기에 도달하는데 중년기는 성숙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자녀를 진수시키며 자신의 노후생활을 준비하게 되는 시기이다. 중년기는 생산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노후를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 너무 늦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노년기에 진입을 하게 된 사람들은 경제수준의 저하와 가정 내 지위하락, 사회활동 기회의 단절,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을 맞게 된다. 특히 근래에는 자녀 진수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다. 자녀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취업을 미루고 결혼을 미루면서 중년층 자신의 노후준비 역시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노년기가 길어지고, 가족의 부양규범, 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약화되었으며, 노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실 중년기 이전부터 보다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신체적 노후준비

신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평소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지와 맞닿아 있다. Rowe와 Kahn(1997)이 이야기 한 성공적 노화의 3요소 중 우선순위 두가지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피해가기'와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기'인 것을 볼

때 건강관리가 노년기 삶의 질을 위한 중요 요소이자, 성공적 노화로 가는 중요한 관문임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 행복감, 생활만족도, 삶의 질을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노인의 건강수준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노년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준비와 건강관리를 떠올리게 되고, 노년기에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Reeves 와 Rafferty(2005)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라이프스타일(Healthy Lifestyle) 특성을 4가지로 측정하였다. 금연, 체중 적절성, 매일 5가지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 그리고 1주일에 5번 이상 30분 이상 하는 규칙적 운동을 그 네가지로 꼽았다.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이 연구에서 오직 3%만이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Healthy lifestyle)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의 건강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이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건강에 대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차승은과 한경혜(2003)는 노년기 이전인 중년기부터 신체적 노화를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년기는 성인 전반기부터 누적된 경험의 영향으로 노년기까지 개인간의 건강수준 편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경제적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저축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적정수준에 대한 의식적인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노년기에 진입한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신체적 준비는 매일 매일의 꾸준한 노력과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 대한 준비 없이 다른 영역의 준비가 의미 없어진다는 의미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 준비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영역보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김문을 2002; 여윤경 2005; 박창제 2008; 백은영 2008)가 많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는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은퇴 전에 현재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은퇴 후 소득과 지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인플레이션에 의한 구매력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 또 일찍부터 장기적 계획을 실행할 경우 복리의 효과, 세금의 연기 혹은 면제의 혜택 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Rice & Tucker 1986; 김인숙 1992에서 재인용). 노년기 충분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 층이 두텁지 않고, 노인을 위한 경제적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현실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중년층은 경제적 노후 대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더 인식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은퇴준비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은퇴계획에 대한 재무책임을 정부나 기업보다는 개인이나 개별가계에 더 많이 부가하고 있는 추세는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여윤경 2005). 예비노인 집단, 특히 베이비부머 집단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상태의 분석과 노후 경제적 상태의 예측과 관련된 주제는 노령연금(social security)와 노령 의료보험(medicare) 자금의 파산가능성 등 국가의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Bernheim(1996)은 'The Merrill Lynch Babyboomer Retirement Index'를 고안하여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기간동안 은퇴이전 수준으로 생활하기 위해 요구되는 저축액수를 실제 저축액과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노년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여윤경 2005).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관리공단(2003)에서 보건복지부가 산출한 기초생활비와 통계청의 가계소비지출을 비용, 연간 물가상승률, 평균 기대수명 등을 근거로 적정 노후생활자금을 추산한 바에 의하면, 만 60세인 부부가 평균 기대수명까지 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의 기초생활

비와 월 50만원의 용돈을 쓸 경우에는 약 7억원 정도의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권중돈 2005). 그러나 이 노후생활자금 추정에서는 부부 모두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나머지 가족 등의 장기 간병비나 자녀교육비, 결혼자금,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 등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노후생활자금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권중돈 2005)고 한다. 현재 노인계층과 성인들 모두 노후 경제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는 대부분 매우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 중에는 실제로 얼마의 비용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이다. 노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판단에 따라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회적 노후준비

현대사회 가족구조의 변화는 1인 가구(노인단독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 확대가족의 감소를 그 특징으로 한다. 게다가 기혼여성들의 취업률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정 내 부양자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노인의 심리적 고립이나 소외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대간 교육수준의 차이와 이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부모 자녀 간 대화의 기회를 줄이고 노인을 가족과 집안일의 결정에서 배제시키는(김양이·이채우 2008)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한다.

노년기를 특징짓는 중요한 역할상실은 은퇴, 사별, 노인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노년기 직업역할과 결혼역할의 상실은 성인기에 경험하는 직업역할상실, 사별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 이유는 노년기에 이러한 역할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그러한 조직이나 가족역할을 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Lowenthal 과 Haven(1968)이 '은퇴, 질병, 사별의 상황에서 친구

가 노인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이러한 역할상실에서의 충격완화와 사회적 지지 원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최신덕·김모란 역 1998) 이래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은 그 후 수많은 논문들에서 지지되고 있다. 역할상실 상황에서 가족, 절친한 친구나 이웃의 부재는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게 된다. 실제로 우울과 관련한 위험요인(Risk factors)은 배우자 사별, 여성, 다중의 만성질환, 만성적인 경제적 압박, 가족의 우울증 병력, 사회적 지원망의 결여 등이라고 한다(Aranda et al. 2001; Garrard et al. 1998; Hooyman & Kiyak 2005).

사실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지 않을 때에는 배우자나 친구, 친척, 직장동료, 이웃 등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장래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 다양한 역할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역할상실은 노년기 삶의 질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그 이전시기부터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직장동료 외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 실천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에 은퇴준비를 돕는 많은 서적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Get a Life : You don't need a Million to retire well(Warner 2004)'이라는 제목의 책을 살펴보면 은퇴 후 잘 지내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가족, 친구, 인생의 멘토 찾기 등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찾는 방법과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김예순(2002)은 우리의 인생주기 어느 시점에서나 일, 여가, 교육이 균형을 이룬 연령통합사회의 장점을 피력하였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교육, 중년에는 일, 그리고 늙으면 많은 시간을 여가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 어느 연령에서든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흥미와 자아를 성장시키

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년기 사회적 활동,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준비를 통해, 일과 여가와 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시간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 연령, 학력, 종교, 현재 경제적 수준 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반적인 노후준비수준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노후준비 및 건강관리에 적극적이었던 연구(임경자 2002), 정서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준비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황승일 2000), 여성이 전체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다는 연구(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에서 볼 수 있듯이 노후준비 영역별 그 차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수준 및 월소득은 노후준비에 중요변수로서 월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선 1983; 서전·박혜인 2004; 김성희 1996; 배계희 1988; 김양이·이채우 2008).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들에서, 홍성희와 광인숙(2006)은 주관적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현재의 주관적 경제적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이,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박창제(2008)의 통계청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남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에 대한 인식, 주택소유, 도시, 전반적 생활여건 향상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중년기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수준을 탐색한 논문이 적지 않았으나 성에 따른 차이를 일관되게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자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노후준비 각 영역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ives

Characteristics		N(%)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153	(36.1)	Age	40-44	190	(44.8)
	female	271	(63.9)		45-49	146	(34.4)
Marital status	married	392	(92.5)		50 and more	88	(20.8)
	not married	32	(7.5)	Monthly income (Unit: 10,000₩)	under 200	108	(25.5)
Region	urban	292	(68.9)		200 ~ 300	105	(24.8)
	rural	132	(31.1)	300 ~ 400	83	(19.6)	
Religion	yes	282	(66.5)	400 and more	128	(30.2)	
	no	142	(33.5)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9 years)	57	(13.4)
					high school(12 years)	201	(47.4)
			college & over(14 years +)		166	(39.2)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40~50대 중장년층 성인 남녀 4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6년 6월 5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였으며, 조사지역은 도시지역(광주광역시, 광양시, 순천시)과 농촌지역(영광읍, 해남읍)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배포 후 수거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시키고 도시 292부, 읍면지역 133부 총 42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응답률: 94.2%).

조사 대상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중·고등학교를 할당하여 선정하였고, 각 학교에서 4개 학급씩을 임의로 표집, 그 학급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성 153명(36.1%), 여성 271명(63.9%)으로 구성되었고, 연령은 40~44세 190명(44.8%), 45~49세 146명(34.4%), 50세 이상 88명(20.8%)으로 분포하였다. 현재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당수의 응답자가 40세~44세(44.8%)에 분포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57명(13.4%), 고졸 201명(47.4%), 대졸이상 166명(39.2%)으로, 대부분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구성과 내용

1) 노년기 인식

노인으로의 지위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노령의 시작이 상당히 점진적이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언제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꼭 짚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라고 한다. 전환을 나타내는 의식을 통과외레라고 하는데, 노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의식은 가장 미미한데 비해 극복하기는 가장 어려운 전환(transition)이라고 한다(최신태·김모란 1998)

현재의 중년층은 노인이 되는 나이를 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노인이 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애사건을 겪을 때라고 여기는지, 노년기에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으로 노년기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노인이 되는 나이는 5세 간격으로 55세에서 75세까지의 연령을 응답범주로 설정하였다.

노인이 되는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범주는 기력이 쇠퇴할 때, 모든 자녀가 출가한 때, 정년퇴직, 성생활이 곤란할 때, 가족 및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 노인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손자녀를 보아서 조부모가 되었을 때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불안한 영역에 대한 질문에서는 건강, 외로움, 경제력, 할일 없음, 부부해로의 5가지 영역을 응답범주로 넣고 각각에 대

해 불안여부로 응답하게 하였다.

2) 노후준비

노후준비 척도는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송석전 2003; Reeves & Rafferty 2005)의 문항을 참고로 하여 전반적인 노후준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노후준비는 현재 노후에 대해 준비하는 정도에 대한 지각을 묻는 1항목으로, '깊이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중이다',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세 가지 응답범주를 가지고 있다.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규칙적인 운동(주 5회 이상, 매회 30분 이상), '건강보조식품 섭취', '적정 체중 유지', '식사를 조절하고 인스턴트 음식의 제한적 섭취', '5종류 이상의 과일과 야채 매일 섭취' 등을 묻는 7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신체적 노후준비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65$ 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경제적 여유, 질병에 대한 경제적 여유, 노후 생활비 조달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관리 의지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74$ 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노후준비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 준비, 친구와의 모임참여정도,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유지, 노후에 여가나 취미활동을 같이 할 친구나 이웃이 있는지에 관한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65$ 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노후준비 의식 각 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소득집단별 노후준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간 차이를 보기위해 사후테스트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인식에 따른 노후준비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노년기 인식

1) 노인이 되는 나이

노인이 되는 나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Table 2), 본 연구 응답자들은 노인이 되는 나이를 대부분 65세(42.5%)와 70세(36.3%)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60세 이하는 16%에 불과하였고 75세로 보는 응답자는 약 5%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노인이 되는 나이를 늦추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남성의 경우 70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 된다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노인이 되는 나이에 있어서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Perception about the age of being aged

Age	Total	Male	Female	N(%)	
					χ^2
55 years old	8(2.0)	3(2.0)	5(1.8)		
60 years old	59(14.3)	18(11.8)	41(15.1)		
65 years old	180(42.5)	55(35.9)	125(46.1)	7.41	
70 years old	156(36.3)	68(44.4)	88(32.5)		
75 years old	21(4.9)	9(5.9)	12(4.4)		
Total	424(100.0)	153(100.0)	271(100.0)		

2) 노인이 되는 시기

광주전남지역 중년층은 주로 신체적 노화(기력쇠퇴, 39.6%)와 역연령(노인이 되는 나이, 23.6%)을 기준으로 노년기를 정의하였고, '가족 및 사회에서의 소외를 겪을 때(10.6%)', '손자녀를 보는 때(9.9%)', '정년퇴직(7.5%)', '자녀출가(6.6%)', 성생활 곤란(1.2%)순으로 노인이 되는 시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우리사회가 65세라고 하는 역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노화를 경험할 때를 노인이 되는 나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건강상 어려움이 없다면,

Table 3. Life event about the timing of being Aged

Characteristics	Total	Male	Female	N(%)
				χ^2
General prostration	168(39.6)	59(38.6)	109(40.2)	3.77
Chronological age of being aged	100(23.6)	38(24.8)	62(22.9)	
Being alone from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	45(10.6)	13(8.5)	32(11.8)	
Being grandparent	42(9.9)	16(10.5)	26(9.6)	
Retirement	32(7.5)	10(6.5)	22(8.1)	
Being empty nest	28(6.6)	12(7.8)	16(5.9)	
Difficulties in sexuality	5(1.2)	3(2.0)	2(0.7)	
Total	424(100.0)	153(100.0)	271(100.0)	

기력이 충분하다면 노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에 따라 이러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중년층의 노년기에 대한 불안요인

노년기 이미지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어떤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이 되었을 때 건강, 경제력, 무위, 부부해로 등에 대해 각각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를 질문하였다(Table 4). 그 결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고(84.0%), 다음으로 경제력(57.1%), 역할 없음(21.7%), 부부해로(14.9%)순으로 나타났다. 부부해로나 외로움,

즉 가족 및 이웃 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나 역할에 대한 불안은 건강과 경제력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성차를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불안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 건강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후 준비

1) 전반적인 노후준비

전반적인 노후준비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Table 5), 중년층의 약 50%가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중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깊이 생각하

Table 4. Anxiety components about aging

Characteristic		Total	Male	Female	(%)
					χ^2
Health	O	84.0	77.8	87.5	6.80**
	X	16.0	22.2	12.5	
Financial problem	O	57.1	59.5	55.7	.56
	X	42.9	40.5	44.3	
Roleless role	O	21.7	21.6	21.8	.00
	X	78.3	78.4	78.2	
Loneliness	O	18.9	20.9	17.7	.66
	X	81.1	79.1	82.3	
Keep the couple relationship	O	14.9	16.3	14.0	.42
	X	85.1	83.7	86.0	

*p< .05, **p<.01

Table 5. Gener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Characteristics	Total	Male	Female	N(%)	
				χ^2	
I Prepared for later life well	141(33.3)	45(29.4)	96(35.4)		
I'm just thinking about the preparation for later life	211(49.8)	77(50.3)	134(49.4)	2.60	
I didn't think about later life, yet	72(17.0)	31(20.3)	41(15.1)		
Total	424(100.0)	153(100.0)	271(100.0)		

Table 6. Mean scores obtained for the physic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Category	Total	Male	Female	t
I do regular physical activity (30+ minutes per day, 5+ times per week)	2.90	3.02	2.84	1.48
I eat invigorant regularly	2.40	2.38	2.41	-.32
I'm on a diet and I don't eat instant food much	3.30	3.11	3.41	-2.74**
I keep healthy weight	3.30	3.38	3.26	.97
I'm consuming 5 or more fruits and vegetables per day	2.65	2.61	2.67	-.49
I keep in mind about nonsmoking, no drinking	3.84	2.95	4.35	-11.29***
I receive medical health examination regularly	3.10	3.25	3.01	2.02*
Total	3.07	2.96	3.14	-2.53*

*p< .05, **p<.01, ***p<.001

고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3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중년층의 1/3은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고, 1/2은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남녀 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신체적 노후준비

다음으로는 신체적 측면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를 질문하였다(Table 6). 먼저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하여 7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흡연과 음주를 피한다’에 가장 높게 동의하였고, 다음으로는 ‘음식조절을 하며 인스턴트 식품이나 외식을 자제한다’,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네문항은 1-5점의 점수범위에서 중간점수인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상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주 5회 이상, 매회 30분 이상)’와

‘매일 5가지 이상의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한다’는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일상에서 하는 운동과 채식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노후준비수준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흡연과 음주에서 남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평소의 음식조절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만 정기적인 건강검진 항목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직장을 통한 정기 건강검진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경제적 노후준비

경제적 측면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를 질문하였다(Table 7). 연구결과,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지 않겠다는

Table 7. Mean scores obtained for the finan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by gender

Category	Total	Male	Female	t
I have enough money to enjoy leisure for later life	2.95	2.87	3.00	-1.40
I have enough financial preparation to receive medical service for later life	3.44	3.32	3.51	-1.88
I will be independent for my living expenses in my later life	3.17	3.20	3.16	0.45
For my later life, I don't want to give my property to my children in advance	3.67	3.57	3.72	-1.50
Total	3.31	3.24	3.35	-1.57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으로 질병에 대한 경제적 준비, 노후 생활비에 대한 준비에서 중간 점수 이상의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나, 노후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중간 값 이하로 나타나 여가생활에 대한 비용 총당에는 자신 없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3.3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문항에서 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사회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5개의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이 3.8점으로(점수범위 1~5),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노후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3점에 이를 정도로 높은 동의를 보였다. 그리고 노후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3.9), 친구와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노후에 활동을 같이 할 친구와 이웃이 있다는 항목

Table 8. Mean scores obtained for the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Category	Total	Gender		t
		Male	Female	
I want to join social activities such as volunteer in my later life	3.85	3.60	3.99	-4.11*
I'm preparing leisure activities & hobby in my later life	3.32	3.37	3.29	.77
I always join my friends group meeting	3.71	3.80	3.66	1.43
I make an effort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spouse & family	4.30	4.27	4.31	-.69
I have friends & neighbor to share leisure time together in later life	3.68	3.59	3.73	-1.55
Total	3.77	3.73	3.80	-1.17

*p<.05, **p<.01, ***p<.001

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응답(3.7)을 보였다.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항인 노후에 할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3.3)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노후준비수준에 있어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후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 의향에 있어서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광주 전남지역 중년층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영역 순으로 노후준비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중년층이 건강관리 및 노년기 건강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은 준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기 인식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년기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했던 변수인 노인

Table 9. Regression for perception of aging and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predicting physical/ financial/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by gender

Independent variables	Male						Female						
	physical prep.		financial prep.		social prep.		physical prep.		financial prep.		social prep.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age	.00	.03	-.01	-.08	.00	.01	.02	.10	-.01	-.04	.00	.01
	education level	.01	.02	.05	.07	-.04	-.05	.05	.07	.06	.07	.10	.14*
	monthly income	.02	.12	.07	.32***	.00	-.02	.03	.15*	.09	.43***	.02	.12
Perception of aging	the age of being aged	.10	.13	.08	.10	.14	.19*	-.04	-.04	.03	.04	-.01	-.02
	health anxiety	-.19	-.13	-.51	-.32*	-.17	-.12	-.06	-.03	-.10	-.04	-.05	-.03
	loneliness anxiety	-.02	-.01	-.47	-.27*	-.04	-.03	-.04	-.02	-.15	-.07	-.26	-.16
	financial anxiety	-.28	-.22	-.36	-.26	.00	-.00	-.21	-.15	-.24	-.16	-.15	-.12
	couple relationship anxiety	.05	.03	-.10	-.05	-.10	-.06	-.06	-.03	-.30	-.14	-.21	-.12
	roleless role anxiety	-.18	-.12	-.21	-.13	-.01	-.01	-.06	-.04	-.08	-.04	-.12	-.08
	constant	2.53		3.68		3.54		2.39		3.00		3.51	
R ²	.08		.18		.05		.06		.25		.05		

* p < 0.05 , ** p < 0.01 *** p < 0.001

이 되는 나이, 노년기의 건강불안/ 외로움 불안/ 경제적 불안/ 역할없음에 대한 불안/ 부부해로에 대한 불안과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을 독립변수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표본에 대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는 .5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노년기 인식과 관련한 여러 변수들은 노후준비수준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월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지각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준비수준을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남성의 경우,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노년기 건강과 외

로움에 대한 불안이 있는 응답자는 경제적 노후준비 역시 부족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노인이 되는 나이를 70세나 75세와 같이 보다 많은 나이로 인지할수록 사회적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 중에서는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소득이 경제적 노후수준에 영향을 미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모델의 설명력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 남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신체적 노후준비나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5%~8% 범위로서 높지 않았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잠

재 고령층, 현재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년기에 대한 이미지와 노후준비수준을 탐색하였다. 이 때 노후준비 영역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노년기에 대한 이미지와 노후준비 정도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중년기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수준을 탐색한 논문이 적지 않았으나 성에 따른 차이를 일관되게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자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노후준비 각 영역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중 고등학교 학부모인 40-50대 중장년층 남녀 424명에게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했고,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본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년층은 노인이 되는 나이를 대부분 65세, 70세로 응답하였는데 과거 연구결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65세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70세, 75세까지 노년기를 늦추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건강하고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년기가 시작되는 나이를 더 늦게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더 길어지고, 노인의 건강상태가 더 좋아질수록 이러한 노년기에 대한 자연된 인식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애사건과 관련하여 노인이 되는 시기를 질문하였을 때 65세라는 노인연령을 기준으로 한 응답자는 1/4수준에 불과했고 신체적 노화, 기력이 쇠퇴할 때를 노인이 되는 기준시점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가 노화를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노년기 불안요인 역시 건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제력이어서 중년층 노후불안의 주요인은 건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노후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약 67%, 즉 2/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노후준비에 대해 이

제 생각해보려고 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대부분 구체화되지 못하고 막연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응답자만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연결시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본 조사 대상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순이었다. 평소 운동을 하거나 매일 건강식을 섭취하는 등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 없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노후준비수준에서의 성차는 신체적 노후준비에서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건강에 관한 불안수준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과 비교해볼 때 흥미로운 결과이다. 노년기 건강에 대한 불안이 여성으로 하여금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년기의 응답자들은 사회적 노후준비가 가장 잘 되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유지 노력이나 노년기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할 사람들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노후준비정도에서 많은 중년층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서는 평균 4.3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노년기 건강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사회적 관계의 부족과 역할 상실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노인 자살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렇듯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신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이러한 자신감이 노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 및 역할유지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의 점수 분포를 보여 연구자의 예상보다 경제적 준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성과 여성의 직업유무나 직업지위 상의 차이로 인하여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과 준비도에 대한 지각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일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연구결과 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90% 이상이 결혼 상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직업구조나 직업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직업지위와 경제적 수준에 대한 부부간 동일시가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추후 남성과 여성의 결혼상태의 차이와 다양한 직업지위를 비교할 수 있는, 보다 연령범주가 넓은 표본을 통해 다시 검증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노년기 인식과 관련한 여러 변수들은 노후준비수준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월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지각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수준을 높게 지각하였다. 즉 여성은 노년기에 대한 인식보다는 소득수준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노후준비 지각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노년기 인식이 노후준비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노년기 건강과 외로움에 대한 불안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역시 부족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는데, 노인이 되는 나이를 70세나 75세와 같은 보다 늦은 나이로 인지할수록 사회적 노후준비수준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즉 노인이 되는 나이를 더 늦은 나이로 생각하는 남성은 노년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나이에 상관없이 보다 젊게 사는 노년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노년기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 중에서는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소득이 경제적 노후수준에 영향을 미쳐 소득수준

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인식이 노후준비지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회귀분석 모델의 설명력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만 남녀 모두 의미 있게 나타난 결과는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은 광주전남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높지만 신체적 노후준비나 사회적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이들 변수 외에 더 중요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성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노후준비 영역별 준비 정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년기 인식이 노후준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른지 등을 탐색하였다. 성에 따라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으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자료이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의 표본에 의존한 표집이어서 한국의 모든 중년층에 대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기존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 역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어서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좀더 연령범주를 넓히고, 성별 다양한 결혼지위나 직업지위가 포함된, 보다 세분화된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노후 준비에 대한 차이를 규명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성인들에게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경각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 40, 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권중돈(2005) 노인복지론. 학지사. 82.
김문울(2002)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스트레스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논문

- 김성희(1996)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김애순(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시그마프레스.
- 김양이 ·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김은선(1983) 노후안정을 위한 청장년의 준비의식. 성신여대 석사논문.
- 김인숙(1992)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박창계(2008)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139-166.
-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은영(2008) 은퇴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사회보장연구 24(2), 27-51.
- 서전 박혜인(2004) 중년기 가족의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18, 143-166.
- 송명숙(2002) 중 · 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 송석전(2003)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의식 연구 : 대전 중남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 여운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21-36.
-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조추용 · 송미영 · 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 차승은 한경혜(2003) 직업, 가족, 그리고 중년기 신체적 건강. 가족과 문화 15(2), 33-60.
- 최신덕 · 김모란 역(1998) 노년사회학. 하나출판사.
- 홍성희 · 광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 Aranda M. P., Lee, P. J., & Wilson, S. (2001) Correlates of depression in older Latinos. Home health care services quarterly 20, 1-20.
- Garrard, J., Rolnick, S. J., Nitz, N. M. Luepke, L., Jackson, J., Fisher, L. R., Leibson, C., Bland, P. C., Heinrich, R., & Waller, L. A.(1998) Clinical detection of depression among community-based elderly people with self-reported symptoms of depression.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A 53, M92-M101.
- Hooyman, N. & Kiyak H.S.(2005) Social Gerontology. 7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 Lowenthal, M.F., & Haven C.(1968). Interaction and Adaption : Intimacy as a Critical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1).
- McConatha, J. T., Schnell, F., Volkwein, K., Riley, L. & Leach E.(2003) Attitudes toward ag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young Adul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t'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7(3), 203-215.
- Moen, P. & Wethington, E.(1999) Midlife Development in a life course context. In Willis, S. L. & Reid, J. D.(Eds) Life in the Middle. San Diego: Academic Press.
- Moody, H. R. (1989) Abundance of Life.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eves, M. J. & Rafferty, A. P.(2005) Healthy Lifestyle Characteristics Amo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2000. Archives of International Medicine v165, 854-857.
- Rowe J.W.,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 Warner, R. E.(2004) Get a Life : You don't need a million to retire well 5th edition. Delta Printing Solutions Inc. U.S.A.
- Wethington, E. Cooper, H. & Holmes, C. (1997) Turning Points in MidLife. In Gotlib, I. & Wheaton, B. (ed.), Stress and Adversity across the Life Course : Trajectories and Turning Point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is, S. L. & Reid, J. D. Eds(1997) Life in the Middle. San Diego : Academic Press.